

앙드레 말로 研究*

—이탈·집착의 對應構造와 〈宿命의 豫示〉—

金 鵬 九

(佛文科 教授)

<目 次>

序 言

I. 이탈·집착의 대응구조

A. 이탈 *détachements*

1. 失郷·浮動人間群
2. 血緣·가족관계
3. 男女관계의 파탄과 에로티슴
4. 反社會·反世俗의 고립인간群

B. 집착 *attachements*

1. 家門·王國·黨
 2. 男兒의 結盟과 信義
 3. 친구관계와 同志愛
 4. 예술과 혁명
- C. 작가 자신의 傳記의 사실과의 부합
—〈생애—작품〉의 대응구조

1. 실향·부동인간↔가문의식과 黨
2. 혈연·가족관계의 파탄↔男兒의 結盟과 信義
3. 부정적·비극적 男女關係↔친구관계와 同志愛

4. 反社會·反世俗 ↔ 예술·혁명·조국과 유럽文化

II. 대응구조의 형태적 특질과 의미

1. 형태적 특질
2. 〈생애—작품〉을 일관하는 대응 구조의 의미 해독

III. 大回歸과 逆이탈의 드라마

1. 조국·유럽文化 옹호(文化史的 反코뮤니슴)
2. 同胞에의 귀속
3. 코뮤니슴 이탈의 경험적 대응구조

IV. 말로의 〈숙명〉과 神祕

1. 숙명의 수락과 〈작품을 통한 豫示 préfiguration〉 현상
2. 回歸의 例外: 혈연·가족관계
3. 최후의 숙명과 신비: 아킬레스의 발뒤꿈치와 외톨이의 죽음
4. 말로 〈생애—작품〉의 특질
結語—예술과 신비

B. 집착(attachement)

위에서 본 4가지 유형의 부정적 면에 대하여, 긍정적 면, 즉 집착(유대의식, 복종 혹은 애착)의 유형은 양면의 구조적인 대응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비교적 간략하게 서술할 수 있다. 이유는 말로 前半期는 처음부터 작가의 집념이 니힐리스트로서의 否定的 면에 집중되고 있어, 긍정적 면은 심리적 보상작용의 욕구로 나타나며(완전 부정만이라면 그 이상 생존할 수 없으니까) 만약 우리가 그 구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들 무심코 간과할 수도

* 본 연구는 위 목차와 같은 전체적 구성을 갖추고 있으나, 그 일부(고딕체인쇄 앞부분)는 이미 1981년 12월에 발간된 「人文論叢」 제 7집에 게재되었으며, 그 나머지 부분중 다시 일부분(고딕체 인쇄 부분)을 여기에 게재함.

있을만큼 간결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는 작가의 철학적인 설명이 따르기 쉽게 독자의 주의를 끄는 반면, 후자는 심리적 욕구나 의지로, 또는 무의식적(혹은 반생 이전의) 집착으로(단 최후의 예술과 혁명 除外) 나타날 뿐이다.

1. 家門・王國・黨에의 집착

a) 家門意識으로서의 단체정신(바벡그老人) : 바벡그老人은 오직 자기가 바이킹의 후손임을 자랑삼을 뿐, 국적이 독일이라는 점은 전혀 안중에 없으며, 특히 그 철저한 反사회적 反骨의 기질로서 더욱 그렇다. 그런 바벡그老人도, 젊은 시절부터 <전설 속에 잠겨버린 약탈선의 조상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내로(……), 이 「바벡그家」의 건설에 몸을 바치게 되었고, 그것으로 자기도 영속되려 했다>²⁵⁾

그리고 먼저 2項에서 언급했듯이, 머느리가 왔을 때도 <단체정신>으로하여 만류하여 가족으로 삼았고, 어린 손자에게 이렇게 타이른다.

「아가, 기억이란 가족의 성스런 墓窟이란다. 산 사람보다 더 많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 (……) <바벡그>의 한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삶든 간에 대단한 것을 뜻하는 거다」²⁶⁾

b) 원시림 속의 未開와 王國(페르캉) : 유럽 사회를 이탈한 모험가 페르캉의 유일한 집착(적어도 클로드를 만날 때까지의)은 라오스의 원시림 오지에 자기 王國을 건설하는 것이다.

<지도 위에 손톱자국을 남기고 싶어서>²⁷⁾ 특히 삼(태국)의 철도부설 방향이 자기 王國쪽으로 접근함에 대하여, 현대 文明 침입에 의한 미개 원주민의 부패를 두려워하는 장면은 그의 철저한 反社會・反세속의 기질을 여실히 말해준다. 또 그가 임박한 죽음을 알면서도 자기 왕국의 보호를 결심하고 山中으로 들어가는 비장한 행동은 그 집착의 강렬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밖에 그라보도 그 오지로 들어가 파멸에 빠졌고, 전설적인 모험가 메이레나 Mayrena도 「王都의 길」에서 그 王國 건설의 선구자로 그림자의 人物 구실을 한다.

c) 코뮤니스트黨에의 소속과 복종 : 「정복자」, 「인간조건」의 극소수의 예외적 인물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이 부류에 속한다. 기성 사회・국가의 파괴, 전복에의 편향으로 일시<공동의 적>과 가장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하여 당에 소속된 소극파(가린이 그 대표), 철저한 직업적 혁명가(보로딘)의 무조건 복종에 이르기까지.

2. 男兒의 結盟과 信義(페르캉—클로드)

혈연 가족의 자연적・情的 관계의 부정과 거부에 대하여 그 對錘를 이루는 이 성숙한 남 아들 간의 전폭적, 무조건적 결맹 관계는 말로의 실생활에서도 가장 유다른 점이며, 후에

25) VR. p. 17.

26) ibid. p. 20.

27) ibid. p. 60.

우리가 부딪칠 작가 말로의 비밀이자 불가사의한 신비와 연결된다. 오래 사귄 우정 관계와는 그 생생과정·계기가 다르고, 그 성격이 다르다. 「왕도의 길」에서는 4번이나 이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첫번째는, 클로드가 자기 조부를 중개자로 기질상의 연계성(차라리 3대에 걸친 分身관계—26세의 클로드와 이에 初老를 의식하는 페르캉은 연령상 父子간의 차이이다).

두번째는, 아직 페르캉의 정체도 잘 모를 때, 몇마디 인생에 관한 대화로서 확인하는 사상적 집념에 의한 일체감이다

「별안간 클로드는 어찌서인지도 모르는 채, 자기가 그를 받아들인 그 사내에게 자기를 맺어준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죽음의 執念」²⁸⁾

세번째는, 클로드가 佛像 탐사, 채취에 동행할 페르캉에 관하여, 사이공 「프랑스 학술원」 앙코오르-왓트 주재원에게서 자세한 정보와 함께 위험인물이라는 점을 알고 다시 그를 만났을 때이다. 그 정보 중에는 특히 페르캉이 기관총 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골몰하여, 삼(태국) 정부와의 투명치 않은 관계 등이 있었다. 내게 관한 정보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페르캉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이 결맹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우리는 함께 우리 생명을 걸고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건 당신을 돕기 위해서이지 해명을 요구하려는게 아니니까요. 기관총이 필요하시다면, 전 다만 그걸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이 섭섭할 뿐이에요. 말씀했더라면 전 그걸 구해 드리고 싶었을 테니까요. (中略)

이해해 주시요. 제가 한 사람을 받아들일(accepter)땐, 전 그를 송두리째 받아들여요. 나 자신처럼 받아들이는거죠. 내 사람인 그가 저지른 어떤 행위에 관해서건, 나 자신이 그걸 저지르지 않았으리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정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어가건 대수롭지 않단 말이에요?〉라는 물음에 클로드는 단호히 대답한다.

「매독때문에 사랑(경사)을 두려워하겠어요? 〈대수롭지 않다〉는게 아녜요, 제. 말은 그저 〈그를 받아들인다〉는 거죠」²⁹⁾

여기서 페르캉 입에서 〈우정〉이란 말이 나왔고, 말로도 〈사내의 우정 amitié virile〉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오래 사귄으로 친밀해지고 정분으로 서로 얽히는 친구간의 그것과는 다르다(후에 밝혀질 것임). 바로 이 문답 전에, 클로드가 안내겸 심부름꾼으로 채용한 현주민 부랑아에게, 믿을 수 없으니 주의하라는 남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고용 임금의 先拂金을 주고 다음날 만나기로 하고 헤어진다. 그 관대한 신뢰의 표시를 보고 페르캉이 미소를 지으며 〈그것도 한 手法인가?〉고 묻자, 즉각 대답한다.

28) *ibid.* p. 36.

29) *ibid.* pp. 57~8.

「그렇게 여겨도 좋아요. 녀석이 무리한이라면 우린 내일 눈을 다시 볼 수 없겠죠. 그렇지 않다면, 한 사람 얻은 거죠. 제가 보기엔 信義(충성)란 아직 써지 않은 희귀한 감정 중의 하나예요」³⁰⁾

보잘것 없는 거리의 부랑아 상대가 아니고, 정말 속말로 배짱이 맞고 대뜸 의기투합하는 남아들끼리 大望을 위한 의지의 결합에 이 변함없는 <신의 loyalisme>의 요건이 갖춰질 때 바로 위에서 본 두 사람의 그것이며 우리가 <結盟>이라 부른 것이다.

네 번째는, 철도부설의 진전에 따라, 원주민을 토벌하는 삼軍과 그 토벌대에 밀려 더 깊은 오지로 물러가는 스티양족, 스티양족이 침입하려는 페르캉의 領地 사방(Savan)족—이 3과전 속에 페르캉이 죽음에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자기 영지를 지키러 돌아가기로 결심하자, 클로드느 그 위험한 3과전 속에 그와 同行을 결심하는 극적 장면이다.

「“함께 가겠어.”

침묵. 희귀한 인간적 결합의 거창한 힘에서 벗어나려는듯이, 둘이 다 창을 쳐다보고 있었다.

(中略)

<어째서 내가 그와 동행하기로 결정한 것인가?> 클로드는 그를 버릴 수가 없었고, 영구히 격리된 듯이 보이는 인종과 동시에 죽음에도 그를 차마 혼자 보낼 수 없었던 것이다」³¹⁾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 조부를 상기함은 무척 의미심장하며, 우리가 <3分身>이라한 타당성을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긍정적인 인간관계 중 가장 강조된 점이란 것도 알만하다. 이 점이 그의 <숙명>과 직결됨을 후에 보게 되리라.

3. 친구관계와 동지애

男女관계의 부정적 면의 강조에 대응되는 심리적 보상은 친구 간의 정의와 행동가들의 동지애로 나타난다.

a) 이질성을 초월한 友誼 : 그중 친구관계는 보편적이며 너무 상식적인 예상사여서, 작품에는 그 原理 같은 것이 나타날 뿐이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말로의 실생활에서이다. 「정복자」에서 아주 어린 시절(리쎬)의 세 친구가 서로 불러들여 廣東政府에 모여든다. 4년 먼저 중국에 가서 광둥정부에 협력하던 랑베에르 Lambert가 1918년에 가린을 불렀고, 가린은 5년 후에 작품의 1인칭 話者를 불러들인다.

모두 리쎬시절의 학우로 랑베에르와 話者는 佛印의 하이동에서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사이다.

그 중학교 시절의 친구(가린)가 10여년 후에 자기가 겪은 재판 사건이며, 니힐리스트로서의 反社會的인 온갖 감정과 사상, 자기 인생관 등을 털어놓는 긴 편지를 보내고, 다시 4년 후 話者 역시 광둥으로 떠나는 그를 마르세이오港까지 배웅하여 거기서 출발까지 같이

30) ibid. p. 55.

31) ibid. p. 155.

묵으며, 혁명에 참가하는 속셈(〈가난한 사람들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공동의 투쟁목표때문에……〉)과 모든 비밀 이야기까지 털어놓는 사이이다. 심지어 아침에 두 창녀 상대의 현장을 들키고도 태연할 수 있는 사이이다. 그렇다고 인생관이나 이데올로기가 서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話者는 가린의 혁명식과 태도를 비판적인 눈으로 보기까지 한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 그런 의견차이나 성격상의 이질성을 초월하는 점이 바로 말로의 특성이며, 이 점 사르트르와 아주 對極的이다.) 그 가린이 오랜 병의 말기 증세에 이르러 아마도 마지막 길이 될 유럽으로 떠날 때, 말로 작품에 좀체로 나타나지 않는 깊은 슬픔의 감동이 치밀어 오른다(작품 끝장면).

「우린 서로 포옹했다. 속에서 이때껏 모르던 깊고 절망적인 슬픔이 거기 있는 일체의 허무한 것에, 현전하는 죽음에 끌려 떠오른다……」

이렇듯 사상적 이질성을 초월한 우의는 이데올로기로 맺어진 同志夫婦 키오—메이 에서 조차 애정문제가 행동가의 약점으로 드러남과 절묘한 對幅을 이룬다.

b) 無名의 同志愛 : 서로 행동을 같이 하던 투사끼리의 동지애가 否定的 變의 同居 내지 情婦와의 관계의 대극이라면, 이름모를 동지끼리, 그것도 어둠 속 얼굴도 모를 동지간의 우애는 역시 부정적 變의 娼女와의 관계(「王都의 길」의 에로티즘의 상대는 반드시 無名—낮모를 사람—이라야만 한다)의 형태상의 대극이라 할 만하다.

「인간조건」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카토프의 최후의 그것이다. 체포된 여러 동지들이 큰 실내체육장에서 죽음의 순번을 기다린다. 하나 하나 끌어내어 기관차 화통 속에 산 채로 처넣고, 그때마다 증기 빠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옆에 안면이 있는 중국인 동지 수앙과 이름 모를 젊은이가 있다. 젊은이는 울고, 수앙은 공포의 헛소리를 연발한다. —〈눈도, 눈도 타고, ……손가락 하나 하나, 배도, 배도……〉

카토프는 상비의 자살용 독약 2人分을 옆의 수앙에게 전부 넘겨주며 2人分이라고 알린다. 수앙이 땅바닥에 떨어뜨린다. 당황한 수앙과 그 이름도 얼굴도 모를 젊은이는 칼칼한 땅바닥을 두 손으로 더듬는다. 카토프도 더듬는다.

카토프도 더듬는다. 한 손이 자기 손에 닿는다. 그 손이 자기 손을 잡는다. 두 손이 꼭 조인다.

「카토프 역시 그 손을 쥐었다. 그가 이때껏 남에게 준 가장 큰 선물에 대하여, 어둠 속에 그에게 돌려주는 진짜 목소리도 없고 얼굴도 없는 그 가난한 友愛에 사로잡혀 금새 눈물이 솟을 듯(……)」³²⁾

겨우 찾아낸 약봉지를 넘겨받자, 그 손이 다시 그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이 이윽고 경련을 일으키며 그의 손을 비튼다. 이 손에 의한 어둠 속의 얼굴 없는 두 사내의 교감은 앞에서 본 일부러 전등을 켜고 同床異夢의 정사를 벌이던 정부관계(페달-발레리)와 참으로 묘

32) CA. pp. 260-1.

한 내용상의 대조를 드러낸다.

4. 예술과 혁명

기질적이며 니힐리즘에 의한 反社會·反세속에 대응하는 쪽(클로드)은 그것을 초월하는 예술에 대한 절대 긍정으로, 혁명적 이데올로기도 거부하는 쪽(키오)은 그것을 파괴하는 혁명에의 집착으로 기울 수 밖에 없다.

a) 시간과 죽음의 초월로서의 예술(클로드) : 「王都의 길」의 클로드는 본시 고대 크메어르(캄보디아) 예술 탐사대원이라는 공식자격으로 불인에 온 것이지만, 다음 사이공 <프랑스 학술원> 원장과의 대화는 말로 자신의 예술관을 그대로 대변한다.

「예술에 있어서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죠. (中略)

미술관은 제 소견으로는 과거의 예술작품들이, 예술가들(현재의)이 그것들을 현실의 생존으로 불러낼 것을 기다리며, 신화가 되어 잠자는—또는 역사적 삶을 살고 있는—장소예요. 그것들이 나를 직접 두드려 주는 것은 그 작품을 남긴 예술가가 그런 부활의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³³⁾

하찮은 인간이지만 그 창조활동으로써, 타기할 지속한 사회의 번속성과 그 틀 속에서의 인간의 <한정된 문명>은 물론 시간마저 초월하게 만드는 것이 예술가의 창조활동이다. 그러나 항상 죽음의 집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子息도 神도 없다>, 다시 말하여 피의 연줄로 이루어지는 세속적 생명의 지속도, 영생의 구원을 바랄 神도 없는 클로드로서는 예술에 의한 사회와 시간과 죽음을 동시에 초월하는 부활(소생)의 구원으로 傾倒될 수밖에 없다.

b) 사회 파괴의 혁명과 工作의 혁명 : 같은 편에서 같은 사회를 대상으로 삼는 혁명투쟁 이면서도 2가지 판이한 태도가 구별된다. 「정복자」의 니힐리스트 가린은 자기 병이 위독할 때까지 파괴하면서 그토록 혁명투쟁에 열중하지만, 오직 그 사회를 파괴하는데만 정신이 쏠려 있다. 그는 코뮌리즘의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혁명 후의 사회에 관심도 없거니와, 더구나 그 사회의 진보따위를 믿지도 않는다—아주 反사회적 a-social이니까.

그 반면 당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보로딘에게는 혁명이란 하나의 전문가로서의 조직적 공작이며, 조직 그 방면의 <대사업가>로서 마치 기업인이 이윤 추구를 최고 목표로 치밀한 계산을 하듯이, 혁명 완수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뿐이다. 이 이질성에서 두 투사의 갈등이 일어난다(가린이 친근감을 느끼던 간부동지며 처참한 모습으로 학살당한 클라인의 추도식까지 선전용으로 삼으려는 보로딘과의 충돌).

마치 같은 反사회적이면서도, 바네그老人이 가문의식에 집착하는데 반하여 클로드는 아예 <자식들도 없고 神도 없는 사내>로 자처하듯이, 하나는 당에 매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당도, 코뮌리즘의 최고의 도그마도 안중에 없으면서, 같은 진영에 속해 있는 것이다.

33) VR. p. 42.

세계로 신념과 행동이 일치된 인텔리형명이 키오와 카토프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혁명에 의한 구원의 실현 이전에, 최후 순간에 당의 지령에 무조건 승복할 수 없는 인간적인 정열로 고뇌에 빠지고 죽음으로 끝난다. 아무래도 그 구원의 불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하다.

C. 작가 자신의 傳記的 사실과의 부합—〈생애—작품〉의 대응 구조

이미 前半期의 말로의 작품에 나타나는 이탈과 집착중에, 이탈 즉 부정적 면이 월등히 강하다는 점을 지적했거니와, 전기적 사실 역시 그렇다. 긍정적인 면의 어떤 점은 후반기에 비로소 실현되기도 한다.

1. 失郷·浮動人間↔가문의식과 당

무국적 내지 국적의식의 결여는 등케르크 Dunkerque에 정착한 조부부터가 프랑스어 아닌 플랑드르(바이킹 후손이 정착한) 말을 썼고, 말로의 첫 결혼의 상대 클라라는 유대계 독일인의 후손이다(아버지代부터 프랑스 정착). 결혼후 스트라스부르, 프라그, 비엔나, 독일(거기서 클라라의 조부를 만났고, 조부는 자기 두 손자가 각각 독·불 두 군대에서 조국을 위하여 잘 싸운 점을 자랑) 등지를 방랑하며, 비밀 출판·필립수입, 특히 증권투기로 한때 거액의 소유자가 되었다가(증권으로), 다시 증권폭락으로 빈털털이가 되어 佛印으로 떠난다(클로드처럼 佛像도굴을 목적으로).

가문의식과 黨에의 소속: 가문의식은 조부 회상으로 나타나나 청년기에는 〈자식들도 神도 없는 사내〉를 자처하던 클로드에 가깝다. 후반기에 이르자 「알렌부르의 호도나무」(2차대전 패전후에 집필, 1943년刊)와 「反回顧錄」(1967)에서 감복되었던 말로의 가문의식이 노출된다. 더구나 제 3의 결혼(후에 소상히 논술)에서는 거의 〈숙명〉의 실현처럼 진행된다. 당에의 소속도 전반기는 사이공에서 反植民 투쟁의 신문을 발행할 때 독립 운동자들의 安南青年同盟과의 친분과 스페인 內亂 때 좌익과의 연합전선으로 나타난다. 전후에는 드골이 영도하는 국민연합당의 간부로 맹활약하여, 가린과는 정반대로 右회전을 보인다. 페르캉의 왕국 건설 집착은 드골과의 제 4 공화국 건설로 대치된다.

2. 혈연·가족관계의 파탄↔男兒의 結盟과 信義

말로가 자란 가정환경도 정상적이 아니다. 4살 때 父母가 이혼, 이태리계 집에 母子가 얹혀 살면서, 한달에 몇 번씩 파리에 올라와 부친을 만나고 용돈을 타가곤하는 유년기를 보낸다. 외조모, 외숙모, 모친—이렇게 남편 없는 3여인 사이에 끼어 있으니, 말로같은 사내 아이가 도저히 정이 들고 즐거울 수 있는 가정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5세 때 리체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가정을 떠난 생활이 시작된다. —학교, 도서관, 친구들과 숲속 놀이…….

그 자신도 결혼을 하지만 클라라와의 관계는 차라리 키요와 메이 한쌍처럼, 그러나 혁명 아닌 모험의 동지관계에 가깝다. 그러기에 클라라도 회고록에서 그를 남편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동반자 mon compagnon>라는 호칭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역에서 모진 고생을 같이 나눈 클라라가 도굴반출죄로 유치판결을 받고, 上 中 호텔에 연금되었을 때, 숙박비가 떨어지자 굶은 끝에 그녀의 자살극으로 병원으로 이송, 그후 상소에서 말로만 유죄 판결, 그녀는 무죄가 되자 귀국하여 석방탄원 운동과 여비를 마련하여 다시 사이공으로 가서 말로와 합류 귀국한다. 그런데 그 엄청난 모험의 경험은 소재로 한 「王都의 길」에 클라라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다. 그뿐인가, 그 첫 머리에서 <여자를 섹스의 부속물……> 운운의 난폭한 구절이 끼어든다. 메이가 만 남자와 동침한 사실의 삽화도 클라라가 귀국 船上에서 일어난 일로, 말로 귀국후 클라라가 麻藥 복용중에 고백한 것으로 전한다.

하여간 스페인 내란(1936)까지 딸 플로랑스 Florence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한 가정을 이루었다기 보다는 행동(근동 古代예술 탐사, 일본·중국·아메리카·南美여행, 反나찌투쟁, 스페인 내란 참전……등등) 사이 사이에 집필하기 위하여 묵는 집을 가졌을 뿐이다.

그것도 스페인 전쟁 후 실질적으로 이혼 별거로 끝난다.

그 후 自意 또는 他意(거의 전부는 사고)에 의한 말로의 숙명적이며 연속적인 가정 상실의 되풀이와 고립은 다음 대조적 집착 <結盟>과 함께 <말로의 신비>라고 할만한 불가사의한 숙명적 결말을 제공하기에, 후에 따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男兒의 結盟과 信義는 긍정적 면으로 「왕도의 길」에서 유달리 강조된 <페르강—클로드> 관계에 대응하여 후반기를 일관한 <드골—말로> 관계로 현실화된다.

똑같이 첫 상면에서 의기 투합했고, 똑같은 변함 없는 신의(loyalisme), 똑같은 무조건적 그것이다. 정치문제에서 손을 떼고 한창 예술론에 골몰할 무렵에 꼭 한번 망데스 프랑스의 인품과 정치 역량에 크게 공감을 느낀 적이 있었으나, 드골에의 신의 때문에(당시에는 아직 드골 재집권의 전망이 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기를 자제할 정도였다(만약 표시했다라면 망데스에게는 큰 지원이 되었으리라). 집권 후 그에게 일부터 新設하여 준 文化部長官(首相다음의 서열)도 완전히 한직이어서, 처음부터 드골이 자기 곁에 두고 싶은 심정으로 베풀어 준 개인적 신의의 표시였다. <장관없는 부청>이라고 소문날만큼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예술론 집필에 심혼을 기울이며 보내고 있었음이 최근에 밝혀졌다(후에 언급할 알랭 Alain의 회고).

전 각료중 드골과 함께 정계를 깨끗이 떠나버린 것도 말로뿐이며, 은퇴 중 드골이 흉금을 헤치고 자기의 역사관, 인생철학, 정치적 회고 등을 이야기한 것도 오직 말로를 상대해서 뿐이었다.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그가 작품에 쓴 것이 후에 현실로 실현되는 불가사의한 일이 수두룩하지만 그 현저한 실례이기에 우선 지적해 둔다.

3. 부정적·비극적 남녀관계 ↔ 친구관계와 同志愛

사적인 경험이나 이력을 일체 피력하지 않을 뿐더러, 회고나 전기따위를 <한 무더기의 비밀>이라고 털어놓던 그에 있어서, 공공연히 동거생활을 오래 계속하지 않은 女人들과의 관계가 남에게 알려질 리 만무하다.

따라서 情婦라든가 창녀와의 관계 따위는 문제될 수 없다.

클라라와 이혼한 후 오랫동안 그녀가 앙심을 품고 이혼의 법적 절차를 거부하여, 정식 결혼을 못한 채 동거하여 아들 둘까지 두었던 女人이 있고, 正式 결혼한 女人, 그리고 최후의 동반자로 여겼던 女人, 도합 3명이 있으나 모두 비극으로 끝났다. 이 점은 혈연·가족 관계에서 부연했듯이, 그의 생애의 가장 큰 드라마이자 불가사의한 비밀로서, 따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하여간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비극적이다.

이에 대응되는 그의 우정과 동지애는 가히 전설적이라 할 만하다.

a) 사상적 적대관계를 초월한 友誼와 信義: 다섯 살 때 학급친구 루이 슈바송 Louis Chevasson은 70이 넘도록 변함없는 친구로 남아 있으며, 사이공에서 反植民투쟁의 신문을 간행할 때도 그와 同行한 것으로 전한다(마치 「정복자」의 가련이 話者를 불러들였듯이).

그의 우의의 충실성은 이데올로기는 물론 세속의 公論까지 초월한다는 실례를 드류 라 로셀 Drieu la Rochelle과의 관계가 제공해 주고 있다. 말로에게는 열등 콤플렉스 때문인지, 늘 자학적 僞惡의인 고백을 늘어놓던 라 로셀이 전쟁중에 나찌에 가담하여 NRF誌를 임의로 속간하기까지 했다. 말로가 항독 투쟁 중에 독일군에 체포되자 그는 말로 처형에 찬동하는 公言까지 서슴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체포를 예상하고 피신 망명 중, 문인으로서 그를 옛 친구로 위로해 준 유일한 사람이 말로였다. 자살할 때 유서 중에 단 한명의 친구로 말로를 지목하고, 자기 유언집행을 그에게 위임했고, 말로는 그 위촉을 충실히 집행했다. 「정복자」의 화자와 가련의 경우보다 훨씬 더 철저한 우의라 하겠다.

b) 기사적 同志愛: 스페인 내란 참전 경험을 담은 「希望」에 기록된 감동적 실화로서 동지들이 전하는 다음 일화는 아주 말로다운 기사적인 용기와 결합되어 있다. 세계 각지에서 차출된 중고품 비행대를 이끌고 작전 출동중, 그는 동승한 부하가 낙하산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호되게 꾸짖으며, 자기 목에 걸린 낙하산을 억지로 그의 목에 걸어준 것이다.

4. 反社會·反世俗 ↔ 예술·혁명·조국과 유럽 문화

적어도 34년 대부터 反나찌 투쟁, 스페인 내란 참전이 있기 이전의 그는 클로드의 성격

과 사상 그대로이다. 그는 아무런 구체적 이유 없이 리세를 중단하고 대학 입학자격시험(바칼로레아)을 포기했다. 그것은 프랑스 사회에서 인텔리로서 어떤 안전한 보장도 받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 사회 탈출의 첫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과연 주로 출판계·잡지사에서 닥치는대로 일거리를 얻고, 돈을 칠 때마다 당디생활로 소비, 결혼후의 방랑, 비밀출판, 마약복용, 그리고 마침내 불명인도지나에서의 도굴사건 등 後半期의 大回歸은 따로 한 章을 내어 살피기로 한다. 이에 대응되는 예술에의 집착이야말로 전·후반기를 일관하여 변하지 않는 一項이다. 전반기는 투쟁과 집필 사이 사이에 주로 행동으로 현지 답사 여행과 자료수집에 골몰했고, 후반기는 정치활동으로 잠시 중단되기는 했지만, 매우 방대한 예술론 저술에 몰두한다.

그의 실제 혁명활동은 반드시 마르크스주의의 그것이 아니다. 사이공에서의 反植民 투쟁의 언론활동(신문 발행), 安南獨立青年團과의 협력, 反나찌 투쟁과 스페인 내란에서는 가린 말대로 <그에게는 모스크의 인터내셔널만이 혁명적 조직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듯하기> 즉,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목적을 위하여 유효한 수단을 장악한 편에서 싸운 것이다.

후반기는 Ⅲ章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인터내셔널에의 환상이 霧散됨에 따라 이념적으로 역전하여 조국과 유럽文化옹호의 투사로 변모된다.

II. 대응구조의 형태적 특질과 그 의미

이때껏 우리는 우선 작품에서 서로 대응되는 부정(이탈)과 긍정(집착)의 4개 항목을 抽出했고, 다음 실생활면에서 이에 부합하는 전기적 사실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대체로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강하게 드러남으로써, 전반기의 총괄적 사상적 동향까지도 명백히 부각됨을 지적했다.

우리는 여기서 <이탈>과 <집착>의 대응구조의 형태(틀)와 그 내용(뜻)이 밀접하게 연결되었음을 볼 차례에 이르렀다. 그 내용은 작가가 전달하는 자기 사상의 진술이 아니고, 대부분이 작가의 의도 이전에(혹은 무의식중에) 여러 作品 중에 混入된 것들을, 우리가 각각 일정한 특성들을 중심으로 추려냄으로써 형성된 대응구조의 형태(비평작업에서 얻어진 結晶體?)의 해독에서 절로 얻어지는 그것이다.

1. 대응구조의 형태적 특징

a) 同質分身과 相補分身: 그때마다 간단히 지적해 둔 分身(double)의 빈번한 형성은 극히 드물게는 불가피하게 요구되어 作品속에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조작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대개는 어떤 쪽으로 쏠리

고 끌리는 기질 또는 인생관의 偏向, 좀 더 격화된 집념따위로 인하여, 빈번히 그런 인물이 형성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① 우선 「王都의 길」에 나오는 바넥 老人-페르캉-클로드 : 이것은 기질상의 同質 3分身이며, 그뿐 아니라 연령상 3代分身이다. 애정에 얽힌 혈연·가족 관계에 똑같이 거부반응을 보이는 反社會·반세속의 고립인간들이 혈연 밖에서 페르캉을 끌어들이므로써 3대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그 기질적 3代 동질 3分身 중 페르캉-클로드는 인생관마저 일치함으로써 따로이 男兒結盟의 盟友관계로 가장 높은 경지의 分身을 이룬다.

② 이데올로기상의 <相補分身>들 : 지조르-키오, 키오-메이, 첫 쌍은 이데올로기는 같되 가르치고 사색하는 부친과 조직하고 투쟁하는 아들, 두 세대에 걸친 通時的 相補分身인父子관계다. 키오-메이는 가정을 이루는 夫婦로서 兩性으로 나뉜 共時的 分身일 뿐만 아니라, 직책상 키오는 밖에서 투쟁하고, 메이는 안에서 투사들을 치료·간호해주는 상보 관계의 분신이다. 그들간에 애정문제가 투사에게 아킬레스의 발뺨처럼 상처를 입힌 점도 아울러 주목해 두었다. 여기서도 아기(혈연)는 없고 혈연 밖의 메이를 끌어들이 3分身을 이룬다. 페르캉 3分身이 모험가였음에 反하여 이 3分身은 혁명으로 두 작품사이에 일단의 진보를 보인다.

③ 다음은 두 작품에 걸친 테로리스트 분신 <홍과 첸>이 있다. 가장 극한적인 절대부정의 고립인간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두 작품(「정복자」, 「인간 조건」) 사이에 같은 고립인간이라도 매우 深化되어, 인간조건에 대한 고뇌가 짙어진다.

④ 긍정·집착의 한 쌍이 있다. 「정복자」의 첸다이와 「정복자」 「인간조건」에 막후인물로 나오는 蔣介石, 둘 다 민족주의, 조국수호 애국자이어서 3작품에 예외를 이루는 分身이다. 연령으로 보아 혈연아닌父子分身이며, 첸다이가 知性的·靜的·사색적인 민족주의자임에 반하여, 後者は 武士的·行動的 일선 지휘관이란 점에서 相補의이다. 兩陣營으로 갈려져 있는 지조르-키오 分身에 대응되어 2쌍의 相補의父子分身 구조를 이룬다.

b) 이탈리아·집착 兩極의 對立分身의 2대에 걸친 대결(홍-첸↔첸다이-장개석) : 마치 代를 잇듯이 두 작품에 걸쳐 등장하는 두 쌍의 대립분신(위의 ③, ④) <홍-첸>과 <첸다이-장개석>은 우리가 살핀 갖가지 이탈리아와 집착의 유형중에서도 가장 상반되는 兩極을 대표한다. 하나는 이탈리아의 극치, 절대부정의 테로리스트이고, 하나는 집착의 극치, 민족주의 전통주의 右派의 대표다. 따라서 절대부정편은 상대방의 존재조차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필연적인 대결이 두 작품에 걸쳐 벌어진다. 그러기에 홍은 첸다이를 첸은 장개석을 살해대상으로 택한다.

c) 否定的 男女관계와 긍정적 친구·同志관계의 대응구조 : 부부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행동가의 남녀관계는 애정에 관한 한 부정적이다. 카토프와 同居女工과의 관계도 女工의 사망으로 비로소 여태껏 침체했던 혁명운동에 다시 몰두하게 되었고, 엠멜릭그에 이르러는

끔찍 못하게 묶어버리고 만다. 여기서 전형적인 두 쌍의 대응구조를 抽出할 수 있다.

위에서 논리적으로 따지면, 더구나 혁명가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이념적 同志夫婦間에서도(키오-메이) 애정문제가 키오에게 충격을 주자, 그 냉철한 혁명가조차 수습하기 힘든 내면의 풍랑을 일으킴을 보았다(후에, 후반기의 그 자신이 보여주듯이 너무 가까운 애정의 연줄이야말로 그 자신의 아킬레스의 발뒷꿈치에 해당된다). 이 男女 한 쌍 앞에 우리는 사상의 이질성을 넘어 변함없는 男女간의 우정—「정복자」의 話者와 가린간의 友情의 한 쌍을 대치시킬 수 있다(작가의 드류 라 로셀과의 관계는 더욱 상례를 높이 넘어 된다).

둘째로는 페랄과 그 정부 발레리와의 관계를 상기하자. 한사코 전등을 켜놓고 상대방 정부의 性的 굴복의 표현을 확인하고 정복의 쾌감을 누리려는 사내와 장차 그의 사랑을 획득하여 부부관계까지 노리는 여자가 성적 도취에 빠지면서도 속으로 복수를 다짐한다. 이 同床異夢의 情事에 빠지는 한 쌍 앞에, 카토프가 어둠속에 정사아닌 혼자 죽어야 하는 자살용 독약을 건네주며, 얼굴도 보이지 않는 암흑속에 동지의 손을 짚 쥐고 최대의 선물을 주고 받는 역시 男·男간의 交感과 이어 그 죽음의 순간까지 손에 오는 저쪽 손의 경련의 감촉으로 같이 겪는 익명의 한 쌍을 대치시킬 수 있다.

이 두 쌍의 남·남간·남·녀간의 관계의 대응 구조도 작자의 의도 밖에 형성된 그것이라.

2. 〈생애-작품〉을 일관하는 대응구조의 의미

이탈과 집착의 각 4항목에서 각각 개별적인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긍정적인 공통적 의미들과 부정적인 공통적 의미들의 두 갈래를 抽出할 수 있다.

a) 失郷·浮動과 모험·행동 : 실향(dépayement)은 모험·행동의 전제조건이다. 자기가 익힌 생활환경, 가족·친척·친구 그 밖의 사회적 연계를 가진 여러 기관, 곤경에 빠졌을 때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뻗거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의지척가 가까이 있는 한 진짜 모험이란 있을 수 없다. 훌훌 단신으로 낯선 사회에 외톨로 뛰어들었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일체의 연줄을 끊고 고국을 떠난 인간들의 세계일 밖에 없다.

아무 이유없이 리체를 중퇴하고 사회에 뛰어들었다가, 유럽 각국을 전전한 끝에 佛印으로 첫 걸음을 내딛은 젊은 앙드레 말로와 작품중의 클로드, 페르강, 가린……등. 사회의 평범한 길을 가지않겠다는 背水陣이 바로 그 사회가 보장하는 자격증명(바카로레아) 포기와 먼 나라로 뛰어드는 일이다.

b) 宿命化의 거부 : 이탈·부정의 4가지 대상들 중 몇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다.

부정되는 자연적·진통적 요소들, 조국도, 자기 혈연·가족 관계도 그가 몸담은 사회도, 마치 나의 출생과 사망이 그렇듯이 나의 의사나 의지로 정해지지않고 나 이전에 이미 주어진 것이다. 둘째로 〈숙명〉처럼 일단 주어진 그것들은 우리의 의도나 재능에 의하여 그 사

실자체를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가 없다. 남녀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부정되는 것도 사랑 역시 이성이나 의지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어쩔수 없는 감정과 정열의 힘에 끌려 강요된다. 는 점에서 숙명적이다. 그러기에 사랑이 배제된 에로티시즘 만이 남는다. 세째로, 그것들을 수락하는 한, 갖가지 <연줄>에 의하여 구속되고 나의 삶 자체가 제약될 밖에 없다.

그런데 말로에 있어서 모험 행동에의 욕구는 죽음에 대한 집념으로 비롯된다.

「별안간 클로드는 자기를 이 사내(페르캉)와 맺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죽음의 집념」³⁴⁾

그러기에 페르캉은 진정한 모험이란 <죽음의 준엄한 극복(지배 domination)>³⁵⁾이라고 한다. 그리고 위의 4가지 구속을 거부하지 않고 수락하는 사람들을 <승장>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마치 不治의 病<암종>인양 속에 지니고 태어난다—<마치 암종처럼 그 죽음의 미지근함을 품안에 켜 채로 사는 것>³⁶⁾. 아무리 건강해도 그 암종의 병세진행에 따라 몇 단계의 老衰현상의 갖가지 자각 증상들을 겪은 끝에 종말을 맞아야 하기에 <산 승장>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죽음이야말로 가장 허망한 마지막 숙명이다.

「죽음의 비극은 그것이 생애를 숙명으로 바꾸어버리고, 그때부터 이미 아무것도 벌충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³⁷⁾

<언젠가는……>, <다시 한 번……>, <이번에는 기어코……> 따위 가능성도 딱 끊기고, 一生을 一점 一획 고칠 수도, 돌이킬 수도 없이 完結事項으로 化石처럼 응결시켜 시간속에 묻어버린다.

죽음을 극복하기위한 행동과 모험이란 결국 그 <숙명>化를 거부하는 반발이다. 나의 동의는 커녕,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엮어놓고 기다리는 숙명의 그물(網). 그 그물을 엮은 수많은 연줄들 중에도, 맨 처음에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연줄들—혈연, 가족(가정), 사회, 조국, 사랑 따위—아버지의 꾸중, 학교 선생님의 숙제, 병역, 그리고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고보니 너무 고집센 고집덩어리더라 따위로 나타나는 그것이다.

결국 숙명의 거부자가 위의 4가지 연줄을 거부하고 거기서 탈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수학의 계산처럼 명백한 해답으로 드러난다.

c) 자연적·情的 세계에서 꿈과 의지의 세계로 : 또 한가지 대응구조의 양쪽에 각각 공통의 특질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조국·가정·남녀관계·사회는 전통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맺어지며, 모험·행동을 구속하는 연줄인 반면, 그 줄을 수락하는 인간에게는 또한

34) VR. p. 36.

35) *ibid.* p. 37.

36) *ibid.* p. 38.

37) L'Espoir. p. 182.

자연스럽게 情으로 맺어지는 場이기도 하다.

이에 반하여 긍정 편 의 가문(王國·黨)·혈맹·친구(同志愛)·예술(혁명) 등은 나의 줄(창조의 이상)과 의지가 志向하고 맞아들이는 쪽이다. <친구>는 약간 이화감을 주지만 말로의 경우는 <신의>(loyalisme)가 강조됨으로써 역시 그러한 성격을 띤다(「정복자」의 話者와 가린, 말로 자신의 어린시절 친구 슈바송과의 책 가두판매 등).

d) 흑독한 상징—혈연·가족관계 파멸에 의한 해방: 우리는 위에서 엠멜릭그가 개미지옥 같은 혈연·가족관계 속에 갇혀 꼼짝 못한 채 자기 신세만을 한탄함을 보았다. 그런데 공산진영에 대한 숙청이 시작되자 그의 가게는 수류탄으로 소탕된다. 수라장이 된 가게 안에는 아기의 팔이 잘려 떨어져있고, 아내는 쓰러져 있으며, 바닥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구두창을 거쳐 끈적거리는 땅바닥을 느꼈다. <그들의 피> 그는 감히 움직일 수 없어 그저 땅바닥을 뜯어지게 들여다보며 꼼짝 않고 서 있었다……그는 마침내 아기(시체-역주)를 발견했다(中略)
<그들을 매장하고 어찌고 할 때가 아니지……> 그는 문을 닫고 쇠를 잠그고 그 앞에서 있었다.
<만약 누가 와서 날 알아보는 날엔 죽는 거지.> 그런데 그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카토프가 얼굴 모를 동지에게 자살용 약봉지를 어둠 속에서 넘겨주고 손을 쥔 채 그 죽음을 지켜주는 장면과 쌍벽을 이루는 극한적인 장면이다. 전자가 비장하고 감동적이라면, 이것은 처절하고도 흑독한 장면이다. 구두창에 끈적거리는 피—이것이야말로 차마 밟을 수 없는 피붙이 연줄의 상징이 아니라 그 자체이며, 그 끈적끈적한 감촉이 바로 그 연줄의 引力을 상징한다. 상품이 모두 파괴되고, 母子의 시체밖에 없는 가게문을 자물쇠로 잠그는 무의식의 몸짓, 그 앞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 引力.

「그는 자기 괴로움을 알고 있지만, 무관심의 무리(羣輪)가 그의 고통을 감싸고 있었다. 병을 앓은 뒤, 또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뒤에 느껴지는 그 무관심 말이다. (中略) 그를 낭패케 한 유일한 일은 그 잠근 문 뒤에는 그 낭자한 피투성이만큼이나 아픔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운명이 서투른 짓을 했다. 아직도 그가 소유하고 있던 그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감으로써 운명은 그를 해방시킨 것이다. (中略) 그의 붕괴, 목덜미 밑을 몽둥이로 한 대 맞은 듯한 느낌, 맥이 빠진 어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의 그 흑독하고 둔중하며 깊은 환희를 주의밖으로 몰아낼 수가 없었다. 혐오와 만족감으로 그 환희가 속에서 地下의 강물처럼 출렁거리며 다가옴을 느꼈다.」

이 혈연·가족의 참사로 말미암은 無家族의 해방은 후에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리라.

그는 거기를 떠나 30미터쯤 와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또 한 번 가게 안에 들어갔다) 온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문을 열어둔 채 남겨놓고 왔구나> 하고 부랴 부랴 되돌아가서 잠그고 떠난다. 다음에 한편으로는 연줄에 끌리면서도 힘차게 행동의 세계로 달려가는 상징적 묘사는 아주 인상적이다.

「강 언덕에서 배를 거슬러 끌어가는 사람처럼 어깨를 잔뜩 앞으로 내밀고 혼돈한 거리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 거리에서 살인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어깨와 뇌수로 그의

死者들의 무게를 이끌고 가는 것이었다. 마침내! 死者들은 이미 그가 진진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게 된 것이다」³⁸⁾

이 전말이야말로 가장 처절하게 거부되는 혈연·가족관계의 가장 혹독한 상징이라 하겠다. 한편에는 그 구속의 고뇌·비탄이 있고, 중국에는 피비린내나는 가족의 참사로 얻어지는 해방과 自由, 드디어 행동에의 投身(그러나 그 연줄의 引力의 무게로 어깨를 잔뜩 앞으로 내밀고)—이 兩面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혹독한 상징이다.

e) 이탈자들의 파멸·죽음: 전반기의 작가 말로는 분명히 철저히 <이탈>편에 서있으면서도, 작품의 主要人物들은 漸爲의으로 파멸·죽음으로 끝난다. 특히 分身들은 이탈·집착 양쪽에 걸쳐 반드시 한쪽이 먼저 橫死함으로써 짝을 잃는 묘한 일치를 보인다.

「王都의 길」 페르캉, 원시림 미개부족의 노예가 되어 눈망울이 뿔힌 산송장 그라보 Grabot, 「정복자」의 클라인(廣東 봉기의 조직자—고문 학살당함), 홍(처형), 주인공 가린은 증병으로 무대에서 퇴장하는 장면으로 끝남으로서 파멸을 암시.

「인간조건」에서는 무더기 죽음이다. —대부분의 주요인물—키오, 카토프, 첸, 그밖의 무명의 동지들의 집단처형, 상해에 혁명의 씨를 뿌린 고도, 아편으로 현실과 고뇌에서 도피하며 홀로 살아남은 늙은 지조르는 이미 파멸한 신세다.

말로 大回歸의 예징일까? 어찌하여 그가 긍정하는 진영이 거의 전멸로 끝나야 하는 것일까? 결국 말로에 있어 꿈과 의지가 志向한 첫 반발(죽음, 숙명에 대한)은 모험, 다음 일단 진보한 혁명을 거쳐, 전반기·후반기를 통하여 변치 않는 예술로 귀착된다. 그리고 그에 있어서 예술이란 죽음, 숙명의 극복으로 時空을 넘어 부활의 가능성을 창조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클로드의 라메즈와의 논쟁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상을 다음 도표로 요약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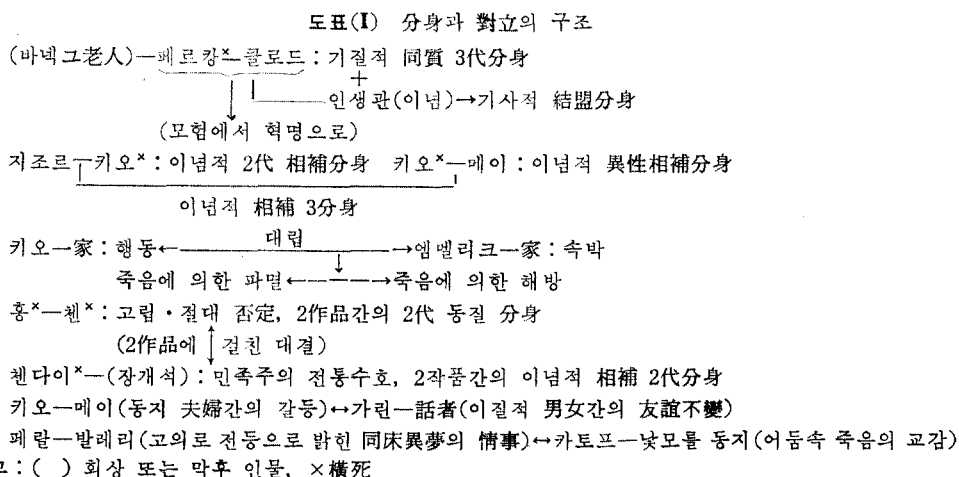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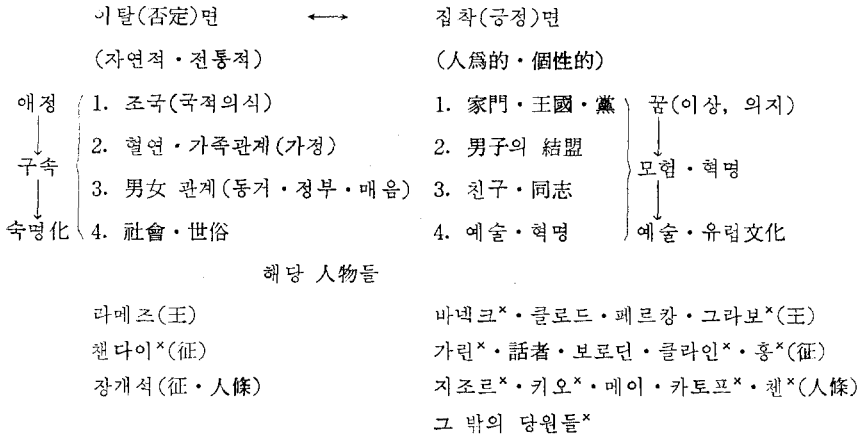


도표 (II) 대응구조의 의미



참고 : × 死亡 또는 파멸자

(王) : 「王都의 길」 (征) : 「정복자」 (人條) : 「人間條件」

문헌목록 및 약호

André Malraux, *Antimémoire* (Anti), Gallimard, 1967.

----- *La Condition humaine* (CH), Gallimard, 1933; Livre de poche, 1954.

----- *Les Conquérants* (Cq), Grasset, 1928; Livre de poche, 1958.

----- *La Voix royale* (VR), Grasset, 1930; Livre de poche, 1954.

----- *L'Espoir*, Gallimard, 1937.

----- *Les Noyers de l'Altenburg*, 1943.

----- *Oraisons funèbres*, Gallimard, 1971.

----- *Hôtes de passage*, Gallimard, 1975.

----- *Lazard* (in *Le Miroir des Limbes*, T.II. *La corde et les souris*, ch. VI), Gallimard, 1976.

Alain Malraux, *Les Marronniers de Boulogne*, Plon, 1978.

Jean Lacouture, *Malraux, une vie dans le siècle*, Seuil, 1978.

Un sens caché: Vie-OEuvre d'André Malraux

—Structures oppositionnelles détachement/attachement et préfiguration du destin—

Boong-Ku Kim

L'article que voici est la suite de celui qui a été déjà présenté dans ce journal No.7 (1981).

Ce qu'il s'agit ici, c'est d'abord "l'attachement", un des deux thèmes aux structures oppositionnelles. Ensuite, il est question d'élaborer le concept de "Vie-Oeuvre".

Nous avons tenté de superposer les structures oppositionnelles nettement dégagées à travers les lectures d'André Malraux à celles de son autre oeuvre qu'est sa vie. Pour Malraux, l'oeuvre témoigne la vie et vice versa.

Le grand retour de Malraux vers sa civilisation occidentale nous amène à un mystère qui se refuse à toute analyse logique. Cet inconnu, nous en traiterons à la fin de cette étude, avec quelques hypothèses qui dépassent le cadre même de son sujet.